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믿음〉도 중하고, 〈소망〉도 중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하다.
2. 〈사랑〉을 통해 ‘믿음’ 도, ‘소망’ 도 이뤄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 이다.” 하셨다.
3.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역사를 하실 때 항상 ‘사랑’ 을 제일로 두고 행하셨다.
4.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은 ‘사랑’ 을 제일로 두고 행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끼리 사랑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5.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항상 ‘사랑’ 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인간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6.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이성 타락을 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 임하사 ‘사랑의 역사’ 가 계속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에덴동산의 사랑의 역사’ 가 깨지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사랑이 깨지니,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역시 사랑을 못 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아벨을 죽였다. 사랑이 깨지니, ‘사랑이 없는 족속의 역사’가 계속됐다. 그리고 후에 노아가 오기까지 1600년이 흘러갔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다시금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신다.

7.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16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지극히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되겠고 하니,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듯이 해야 된다. 그 단계의 선(線)을 넘어가야 된다.
8.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하나님은 ‘신랑 입장’ 이시고, 우리는 ‘신부 입장’ 이다. 고로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9. 하나님과 주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면, 사탄이 자기 세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사탄의 것’ 이 된다. 다시금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를 사랑해야 ‘하나님과 주의 신부’가 된다.
10.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하셨다. 이 시대 보낸 자도 말씀한다.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지켜라! 이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11.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12. <하체 사랑>은 ‘저 밑의 사랑’에 불과하다.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은 ‘맨 위에 있는 사랑’이다.
13. <뇌 사랑,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하면, 변함이 없다. 아예 뇌에 그 사랑이 꽂 박혔기 때문이다.
14. 진실로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권’에서 벗어난 자다.
15.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권’에서 벗어난 자다. 일점일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없어야 된다.
16.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사탄의 밥’이 된다. <사탄>이 주관한다.
17. 가령 한국말 중에 ‘하’자를 쓴다 하자. ‘ㅎ’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ㅣ’를 쓰고 점을 찍어야 ‘ㅏ’가 된다. 점을 안 찍으면, ‘히’자로 끝나게 된다. 온전히 점을 찍어야 완전한 ‘하’자가 되듯이, 이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8. <사랑 점수>가 충분히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사랑해.”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

도로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만족해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보람을 느끼신다.

19. 하나님과 주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20.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라.

21.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22. <육적인 사랑, 살덩이 사랑>을 통해 ‘정신’에도 불이 붙긴 하지만, 그 불은 얼마 안 간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정신적 사랑의 불>이 붙어서 타 내려가면, ‘육적인 세계’를 좌지우지해 버린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이다.

23.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은 ‘위’에 있지, ‘밑’에 있지 않다.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위해 말씀해 주신다.

24.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으로 사랑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25.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다. <뇌, 머리>는 ‘금단의 열매’다. 고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뇌가 흥분되고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6. 하나님은 ‘말씀’ 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을 알 수 있다.
27.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마치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가졌으면 더 이상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 가 되어 살면 더 이상 없다. 그 사랑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생활>이 ‘사랑 관계’ 가 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사랑’ 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8. <주>를 보통으로 보면 안 된다. <주>는 ‘상징적인 하나님’ 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면, ‘직접적인 하나님’ 이 된다. 임금 옆에 있는 신하들은 평소에는 ‘임금의 상징적인 인물’ 이다. 그러다가 임금이 신하와 일체 돼서 같이 일을 하면, 그때는 신하가 곧 ‘임금’ 과 같다.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온 자라도 ‘10년, 20년 전에 와서 못 깨달은 자’ 보다 훨씬 앞서간다. 고로 그런 자에게는 바로 사명을 준다. 이는 <사랑의 급수>를 보고 하는 것이다.
29. 하나님도 주도 ‘말씀’ 으로 사랑하는데,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식물인간>과 같다.
30.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31.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못 한다.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갖다 놓았어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곧, 성령폭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작품>이다.

3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다 받으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 하는 사랑을 펴부어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으면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사랑해 줘도 그 사랑에 반응이 없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하다. <사랑>에 있어 성장하고, <신앙>에 있어 성장하고, <믿음>에 있어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 성장하고, <뇌와 생각>에 있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해 주셔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을 안 하면, 사랑을 해 줘도 죽는다. 고로 빨리 성장해야 된다.

33. <사랑의 성장>, <믿음의 성장>, <행실의 성장>, <생각의 성장>이다.

34.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 보다 10조 배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고로 그 사랑을 다 줘야 만족하시는데, 우리가 성장을 안 하면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없다.

35.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할 때’ 도 나타나고, ‘운동할 때’ 도 나타나고, ‘나무 심을 때’ 도 나타나고, ‘일할 때’ 도 나타나고, ‘이야기할 때’ 도 나타난다. 이같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를 잘

못 본다.

36.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없이 하나님과 직접 통하려면 안 된다.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통해지지 않는다. 왜? <송신탐> 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송신탐’ 이 없으면 안 통한다.

37. 선생이 10대 때 꿈에 보이기를, 선생이 월명동에 서 있었는데 나를 통해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선생이 ‘송신탐’ 이 돼서 서 있었다. 후에는 그 꿈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 를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깨달았다.

38.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권능>도 ‘성장’ 하면 받아들인다.

39.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성장’ 을 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된다.

40.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뇌 사랑,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을 해야 된다.

41. <하나님 사랑의 근본 세계>가 ‘뇌, 정신’ 에서 이뤄진다. <뇌, 정신>에 불이 붙으면, 생각하는 대로 ‘수만 가지’ 로 흥분된다. 그런데 <이성으로 관계하는 사랑>은 그것 ‘하나’ 만 흥분된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뇌’ 로 받아야 감당하지, ‘하

체’로 받으면 실 가닥에 불과하니 감당하지를 못한다.

42.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만 하니, 하나님은 ‘양심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셨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리 하지 않으니 심판을 받고 모두 사망권에 거하게 됐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는 길’을 주셨지만, <사랑을 제일로 두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사망에 거하게 된 것이다.

43.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고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양심에 채찍을 가하신다.

44.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침없이 펴나갔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벌거벗은 채 누워 있는 노아를 보고 부끄럽다고 하며 옷을 갖다 덮어 줬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사랑했기에 부끄러워서 벗고 숨은 것이지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떳떳했으나, 함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옷을 덮어 준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며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

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노아 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후손들이 탕감 받고 복직하는 역사가 1600년 만에 일어나서, 구약 나뭇대로 사랑의 역사를 펴고 있었던 때다. 아담 때 못 한 것을 하나님께 행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노아의 욕신을 쓰고 사랑하며 그 역사를 땅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함이 몰랐던 것이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옷을 덮어 주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댄 자>는 시대 저주를 받고 사망권에 처한 자가 된다. 이는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다.

45.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이뤄지는데 그것을 막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46. 하나님은 <말씀>도 ‘욕신’을 쓰고 하시고, <사랑>도 ‘욕신’을 쓰고 하신다.

4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완전한 자다. 사랑도 완전한 자다.” 하셨다.

48. <함>은 ‘믿음’을 절대 지켰어야 됐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고로 400년 후에 아브람이 와서 믿음의 조건을 세웠다. 고로 하나님은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함이 세우지 못한 믿음의 조건>을 아브람이 세웠기 때문이다. 고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사랑이 형통하는 역사를 펴셨다.

49. <다윗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 터전 위에 ‘통일 왕국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하여금 ‘시대 역사’를 펴게 하셨다.

50. <솔로몬 때>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며 시대의 뜻을 펴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을 짓게 하셨다. <성전>이 ‘하나님의 궁’이다.

51.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고로 <기다리던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5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어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육도 형통하고 영도 영생케 하셨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 안 믿는 자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고 사망에 묻히게 됐다.

53.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약역사가 끝나고 때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랑의 목적, 휴거 역사>를 하셨다. 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휴거시켜 그 영들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54. 하나님은 〈태초, 창세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도 ‘사랑’으로 목적을 이루셨다.

55. 〈절대 하나님 사랑〉, 〈절대 성령님 사랑〉, 〈절대 주 사랑〉, 〈절대 형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56.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랑에서 벗어나고 휴거의 육도 영도 안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57.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몸’과 같다.

58. 〈자기 소망, 자기 믿음〉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여라. 형제를 사랑하여라.